

대한제국의 다문화 공간: 정동*

박 경 하**

목차

머리말

I. 서울 개조계획의 중심

II. 대한제국의 외교타운

III.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식 교육의 요람

맺음말

머리말

개항 이후 외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조선 조정은 일본인에게는 남산 기슭, 중국인에게는 청계천 수표교 일대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편, 서양인들에게는 정동을 거주지로 지정했다. 그 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공사관이 속속 들어서고, 근대적 학교들이 세워졌으며 교회와 선교사 주택, 서구식 호텔이 자리 잡았다. 뮐렌도르프(P. G. von Moellendorff, 穆麟德),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 韋貝), 에케르트(Franz von Eckert), 브라운(John McLeavy Brown), 손탁(A. Sontag), 스크랜턴(Mary F. Scranton),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언더우드(Horace Grant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Underwood),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알렌(Horace Newton Allen, 安連) 등이 여기에 살며 궁궐에 출입했고 비숍(Isabella Bird Bishop), 브라즈(Enrique Stanko Vraz)도 여기를 서울 기행의 거점으로 삼았다.

아관파천에 이어 고종이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고 환구단을 지어 광무개혁을 추진하던 1900년 전후, 경운궁과 정동은 명실 공히 권력과 외교의 무대가 되었고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를 중심으로 황도에 걸맞게 서울을 개조하려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이 때의 경운궁과 정동은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조화시키려던 대한제국의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이념의 결과이자 그 상징이었다.

서울 도심은 지난 100여 년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도시의 바탕위에서 인구 천만 명을 헤아리는 거대도시로 압축 성장하였다. 특히, 서울 도심 중에서도 정동은 문화유산과 현대도시의 특징이 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층적으로 맞물려 있는 지역이다. 지형과 성곽유적, 궁궐과 도시기념시설, 외교와 선교, 근대 양옥과 한옥 풍경이 어우러져 있다. 이들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역동성을 온전히 읽을 수 있으며, 역사적 층위를 겹쳐봄으로써 정동이 가지고 있는 개화기 다문화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제국의 다문화 공간으로서의 정동의 성격을 첫째, 고종 황제의 한성 개조계획을 통하여 살펴보고, 둘째, 경운궁을 둘러싸고 서양 각국의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정동이 대한제국의 외교타운으로 기능하게 된 점, 셋째, 서양 선교사들이 정동에 터를 잡고 선교활동 및 근대교육을 실시한 요람으로서 정동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 서울 개조계획의 중심

조선의 건국과 함께 세워진 서울은 대체로 자연과 성벽에 둘러싸인 폐쇄적인 도시였다. 그리고 서울의 북쪽은 궁궐 관부들, 남쪽은 일반 백성들의 공간으로 배치되어 몇 백 년 동안이나 유지되었지만 개항과 더불어 19세기 말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정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운궁(慶運宮)은 조선왕조의 다른 궁궐과는 달리 전통 한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¹⁾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석조전, 중명전, 정관헌을 비롯하여 돈덕전, 구성헌 등 크고 작은 서양식 건물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운궁의 특징은 당시의 시대적 변화인 서양식 건축양식의 영향으로 생긴 변화라 하겠다.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경운궁을 정궁로 삼아 이어한 고종은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한성 개조사업을 계획하였다. 1896년 9월 30일 <내부령>에 의해 서울 개조사업은 8년 동안 주미공사로 활동했던 박정양(당시 총리대신 겸 내부대신), 이채연(한성부 판윤), 이상재(당시 내부 토목국장), 맥레이 브라운(총세무사, 탁지부 재정고문) 등 초대 주미공사 팀이 주도하였다. 이채연은 박정양이 1887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으로 부임했을 때 참서관으로 동행했었는데, 이 때 미국의 도시미화운동을 목격하고, 특히 워싱턴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한 한성전기회사가 고종의 내탕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은 고종의 도시개조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 경운궁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곳인데, 임진왜란 시기 선조가 의주 파천에서 돌아와 월산대군의 사저를 거처로 삼아 정사를 보기 시작하였다. 그 뒤 광해군이 이곳에서 즉위하였고 즉위 2년째 되던 해인 1611년 10월 이름을 경운궁으로 바꾸었다.

<자료 1> 「家舍에 關한 照覆文書」에 그려진 정동 지도²⁾



대한제국의 출범과 아울러 경운궁은 황궁이 되었고 당시 서울의 도시구조는 경운궁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본궁을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본궁 이전은 단순히 왕의 거처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간의 재편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경복궁과 육조거리가 한양의 상징적 중심이었지만, 도시 기능의 중심은 종로와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운중가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출범 이후 서울의 중심은 운중가에서 대한문 앞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경운궁이 제국의 황궁으로 부활하였지만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육조거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황궁과 행정관서 사이의 연계를 위하여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필요했고, 이는 오늘날 태평로의 개설로 이어졌다. 그리고 남별궁에 환구단이 세워지면서 소공로를 개설하고, 소공로는 남촌을 대한문 앞으로 연결시켜 남대문 상권을 정동과 대한문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연결통

- 2) 1907년 4월 23일 제실재산정리국에서 황실 소유 가옥을 조사하고 작성한 문서인 『家舍에 關한 照覆文書』에는 정동에 위치한 황실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 있다. 도면의 황실 소유 부동산 9채 중에서 손탁(孫鐸, A. Sontag) 및 서양인 소주(所主)로 기록된 가옥이 많아 당시 황실 가옥이 외국인에게 상당수 제공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송인호, 「정동의 역사도시경관」,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03), pp.37-42; 서울학연구소,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건축에 대한 학술연구』(연구보고서), 서울학연구소, 2011.

로가 되었다.³⁾

고종은 초대 주미 공사 박정양으로 하여금 워싱턴 DC의 바로크식 방사상 도로체계를 도입하여 경운궁의 대안문(大安門) 앞을 방사상 도로의 절점으로 삼아 광장을 만들고 도심 구실을 하게 하였다. 아울러 운중가, 남대문로의 가옥들을 철거하여 길을 넓히고 황토현신작로(현 태평로), 서소문로를 확장하여 전차를 개통하고, 탑골공원(1896)을 조성하여 당시 서울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도시공원은 과밀 도시의 허파로서 공중위생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궁궐 내 정원과는 달리 도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도시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⁴⁾ 이 같은 상황은 당시 한국을 여행했던 비숍 여사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서울은 많은 면에서, 특히 남대문과 서대문 근방의 변화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도로들은 최소한 17미터의 폭으로 넓혀졌고 그 양쪽에는 돌로 만들어진 깊은 경계가 있으며, 그 중앙은 돌의 후판(厚板)에 의해서 메워졌다. 그 도로들이 있던 자리는 원래 콜레라가 발생했던 불결한 새길들이 있던 곳이다. 좁은 오솔길은 넓혀졌고, 진흙투성이의 시내에는 포장도로에 의해서 사라지고 없었다. (.....) 가까운 시일 안에 전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멋진 장소에 프랑스식 호텔을 세우기 위해 준비가 행해지고 있었고, 유리로 된 진열대가 있는 상점들이 수없이

-
- 3) 안창모, 『대한제국의 황궁, 덕수궁 - 근대 한국의 원공간』,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13, pp.61-62.
- 4) 최근 식민사관 극복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고종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고, 그 중 이태진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이태진은 무능한 고종의 이미지는 ‘서양 아마추어 역사가의 심한 편견과 일본 침략주의 책략’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고, 고종의 개방 개화 정책을 제시하며 조선이 무능 무력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기존 통설을 반박하고 있다. 그 중 한성 도시개조계획이 눈길을 끈다. 이 주장의 단초는 김광우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김광우는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에서 경운궁 중건 시 방사형 도로망 계획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 계획이 개화파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이태진은 도시계획의 주체가 개화파가 아닌 고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8; 김광우, 『대한 제국 시대의 도시계획 - 한성부의 도시개조사업』, 『향토서울』 50집, 1990.

세워져 있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도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가장 지저분한 도시였던 서울이, 이제는 극동의 제일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중이다.⁵⁾

황도(皇都)의 위용을 갖추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경운궁에 중명전, 정관헌, 구성헌, 환벽당, 돈덕전 등 양관들이 신축되었고 1900년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궁내에 양관(洋館)이 세워진 것은 대한제국이 개명된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종은 당시 대한제국의 총세무사이자 탁지부 고문관이었던 맥레비 브라운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한제국의 정전(正殿)으로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석조전(石造殿)을 건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00년 5월 26일자 <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에 석조전의 사진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설명을 보면, ‘대한제국 황실의 새로운 궁궐, 남동 측 입면’이라는 글과 함께 설계자 하딩(J. Reginald Harding)을 소개하고 있다.⁶⁾ 석조전은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전통 가옥은 흙과 나무로 지어진 반면, 돌로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건축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구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했다는 점은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고종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며, 새로 출범하는 대한제국이 서구를 모델로 하는 근대국가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아울러 고종은 1901년 8월 25일 중화전 건설을 명했고, 1902년 11월 12일 조원문의 상량식이 행해지면서 중화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중화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운궁의 공간구조 역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대한제국 출범 당시 경운궁의 정문은 인화문이었지만, 중화전을 건축하면서

5)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p.497.

6) 안창모, 앞의 글, p.63.

황실은 인화문 건너편에 있던 독일공사관 터를 매입하였고, 궁역을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인화문이 철거되고 자연스럽게 대안문이 경운궁의 정문이 되었다. 대안문은 1898년 건축되었는데, 이는 경운궁의 동쪽이 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황궁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경운궁 부근 외국인 토지소유(1912)⁷⁾

지번	소유자	면적(평)
1-1	A. Sontag(독일인)	73
2	R. Brincmeier(독일인)	381
3	영국 성공회	2,140
4	영국 공사관	3,144
6	A. Plaisank(프랑스인)	24
8	H.W. Davidson(미국인)	1,205
10	미국 공사관	3,152
13-1	E.A. Lewis(미국인)	934
15	러시아 공사관	6,198
16	A. Sontag(독일인)	418
17	루프헤이블(프랑스인)	1,405
19	何澤民(중국인)	116
22	러시아 정교회	1,231
23	A. Plaisank(프랑스인)	519
24	A. Kalitzky(독일인)	66
25	A. Kalitzky(독일인)	323
26	何澤民(중국인)	145
27	雲載存(중국인)	1,068
29	A. Sontag(독일인)	1,184
32	감리교 선교회	
33	D.A. Bunkar(미국인)	31

7) 김갑득·김순일, 「구한말 정동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7), 2001, pp.153-162 재인용.

현재 소공로, 서소문에 이르는 서소문길, 외국 공관들이 밀집하여 공관로라 불린 서대문에 이르는 정동 길 등도 1896-1897년 사이에 정비되었다. 1904년 경운궁 대화재로 양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자 고종은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기고 경운궁 중건을 명했는데,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 한 것이 중명전이다. 원래 중명전 주변은 서양 선교사들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던 곳이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가 예약했던 땅에 선교사 알렌이 주택을 지으면서 서양 선교사들의 정동 거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미국공사관 주변의 서양인 거주지, 정동여학교, 이화학당 등 선교와 교육을 위한 공간은 정신여학교와 선교사들이 연지동으로 옮기면서 경운궁역에 포함되었다.

서울을 황도로 개조하기 위한 노력은 경운궁의 건설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1896년 가을부터 시작한 서울의 도로정비사업 또한 서울을 황도로서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였다. 서울의 거리 풍경을 급격히 변화시킨 도로정비사업은 1896년 9월말 내부대신 박정양의 이름으로 공포된 내부령 제9호 「한성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내부령 제9호는 종로와 남대문로의 길 폭을 55척으로 새로 정하고 가가(假家)를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근거로 간선도로는 정부주도로 정비되었다. 도로정비사업과 함께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이 등장했다. 1896년을 전후한 시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위에 들어서 있던 민가들을 철거하고 조성된 탑골공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도시공원은 근대도시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표상이었다.

1907년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운궁의 위상도 달라졌다. 고종을 이은 순종황제는 창덕궁을 황궁으로 삼았고, 황위에서 물러난 고종이 거처하던 경운궁의 명칭은 이후 덕수궁(德壽宮)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출범과 경운궁의 황궁화는 조선의 개국 이래 지속되었던 도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렇게 재편된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도시구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서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II. 대한제국의 외교타운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서구 열강들과의 근대적 외교관계가 연이어 체결되면서 정동은 여러 나라 공관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의 주택, 호텔, 레스토랑, 식료품점들이 들어서면서 정동은 서양인들의 생활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1894년 10월 8일 발생한 을미사변(乙未事變)과 1896년 2월에 단행된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고종은 1년 여 동안 러시아공사관에 기거하면서 왕조를 제국으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⁸⁾ 거기에는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부여한 내각제를 혁파하여 왕권을 회복하고 경운궁을 본궁으로 삼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영국, 미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대한제국이 경운궁을 본궁으로 삼으면서 대안문에서 바라보이는 지점에 위치했던 청국 사신의 숙소인 남별궁을 헐고 그 자리에 원구단을 세웠다. 이는 청국과의 오랜 주종관계를 청산하는 고종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청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은 청국의 칙사 일행을 맞이했던 영은문(迎恩門)이었다. 영은문은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에 의해 헐리고 두 돌기둥만 남아있었는데, 고종은 이 자리에 청국으로 부터의 독립의지를 나타내는 독립문을 세웠다. 마침내 1899년 9월11일대

8) 정동구락부의 리더 격인 이완용과 이윤용, 이범진 등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하여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모실 것을 합의하였고, 그 후 국왕 구출작전은 성공하여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왕세자는 궁녀들이 타는 교자로 경복궁을 빠져 나와 무사히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Gustave-Charles-Marie Mutel, 『뫼텔주교 일기』 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p. 420.

한제국과 청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조약이 체결되고 공포되었다. 이 조약은 양국 간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청국과의 중국과의 오랜 조공책봉체제를 공식적으로 종결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청국과의 조공책봉 관계의 청산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서구 열강들과의 조약체결로 나타났다.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1883. 11.26.), 독일(1883.11.26), 이탈리아(1884.06.26), 러시아(1884.07.07), 프랑스(1886.06.04), 오스트리아(1892.06.23) 등 11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가운데 공사관 또는 영사관을 개설한 나라는 모두 아홉 나라이며, 별도로 공관을 개설하지 않았던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등 두 나라였다. 고종이 러시아공사관(1885.10, 현 정동 15번지)에 인접하고, 미국 공사관(1883.10, 현 정동 10번지) · 영국공사관(1884.04, 현 정동 4번지) 등 서양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가까운 경운궁으로 이거한 것은 일본군이 경운궁에 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고종이 경운궁을 정궁으로 정한 이후에는 덴마크, 그리고 당시 중립국인 벨기에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만국우편조약, 적십자조약에도 가입하였다.

그럼 다음으로 정동 일대에 들어 선 외국 공관에 대하여 살펴보자.

서양 각국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공관을 지었지만 조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입지선정에서부터 자국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는 공관의 규모와 건축양식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말 정동 일대에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건축양식으로 공관을 건축하였던 것이다.⁹⁾

9)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가 ‘조지안 스타일’과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공사관을 건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공사관은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사진 1> 미국공사관 전경



<사진 2> 영국공사관 전경



있었다. 미국은 정동 소재 한옥을 매입하여 공사관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본은 르네상스풍의 벽돌조 공사관을 건축했다.

1882년 5월 22일, 조선 측 전권대관 신헌과 미국 측 전권대관 슈펠트 제독 사이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체결 이후 미국에 서는 초대 주한전권공사로 푸트(Lucius H. Foote) 장군이 부임하였다. 푸트는 우선 정동에 있는 필렌도르프의 집에 기거하다가 정동 일대에 공사관 자리를 물색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1883년 5월 20일 정동에 있는 정5품 한림학사 민계호(閔啓鎬) 소유 사저를 구입하였다.¹⁰⁾ 미국대사관 자료에는 1884년과 1890년 공사 관저 부근의 기와집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땅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00년 무렵 부분적인 내부개조와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미국공사관은 푸트 공사 개인 소유지에서 외교업무를 시작했음을 할 수 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서울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미국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기도 하였고, 유럽에서 출판된 여행 안내서에 ‘서울에 있는 호텔들’이란 제목 아래 ‘여관이 된 미국공사관’이라는 글이 실려 있을 정도로 한 때 외국인의 체류장소로 쓰이기도 하였다.¹¹⁾ 이 관저에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 21년 동안 알렌이 전의(典醫)로서, 그리고 공사이자 총영사로서 머물렀다.

10) 1884년 8월 14일, 200칸의 궁터와 125칸의 건물을 민계호에게 1만 냥을 주고 매입했다. 당시 1만 냥은 미화 2,000달러였는데 푸트는 그것을 개인 돈으로 지불하였다.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p.121.

11) H. N. 알렌 저, 신복룡 역, 『조선건문기』, 집문당, 1999, pp.242,252; 서울 중구문화원, 『정동: 역사의 뒤편길』 (서울특별시 중구향토사 자료 제11집), 상원사, 2007, p.66.

<사진 3> 미국공사관에서 촬영된 각국 외교사절의 모습(1905)¹²⁾



영吉利(英吉利), 대불렬전(大不列顛, The Great Britain)으로도 표기되는 영국(英國)과 조선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한 것은 1883년이다. 공교롭게도 영국과 독일은 한날 한시, 즉 1883년 11월 26일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영국은 북경주재 영국 공사인 해리 파크스(Sir Harry Smith Parkes, 巴夏禮; 1828~1885)가, 조선 측에서는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민영목(閔泳穆)이 전권대신으로 체결한 조약이었다.

영국 정부가 정동에 영국공관의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3월부터였지만, 당시에 토지 매입에 관한 교섭은 1884년 4월 16일에 한성

12) 1905년 미국 공사 알렌의 초청으로 대한 제국에 있던 각국 공사들이 미국 공사관에 모여 회의를 한 후 찍은 기념사진이다. 오른쪽에서부터 청국 공사원, 잘테른 독일 공사, 플랑시 프랑스 공사, 알렌 미국 공사, 쉐 코낭환 청국 공사, 조던 영국 공사, 방갈르트 벨기에 공사, 그리고 세 명의 영국 공사관 직원과 가장 왼쪽에 미국 공사 패독의 모습이 보인다. 일본 공사는 회의에 불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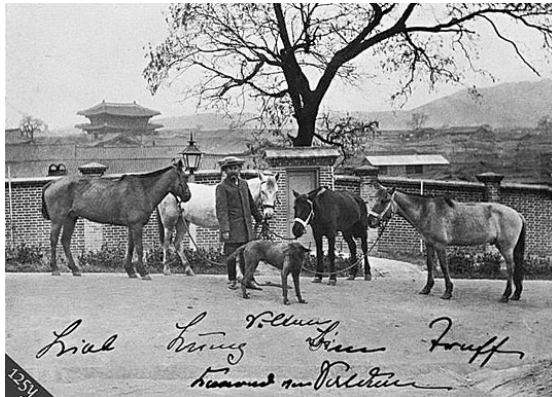
부(漢城府)가 중재에 나선 뒤에야 타결을 보았다. 영국대사관 측의 '토지 처분문서'에는 토지의 소유주가 신석희(申奭熙)로 확인된다. 신석희는 훈련대장과 병조판서 등을 지낸 신헌(申櫛, 1810~1884)의 아들로 대한제국 시기에 내부협판, 내부대신서리를 지냈으며, 1898년에는 경무사(警務使)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영국공관은 미국공사관에 이어 두 번째로 정동(貞洞)에다 그 터전을 잡았고, 이때 개설된 영국공관은 영국공사 대신에 애스턴 임시총영사가 상주하였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영국공사관이 아닌 영국총영사관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총영사관이 영국공사관으로 승격한 때는 이로부터 14년이나 지난 조던(John N. Jordan, 朱邇鄔)이 총영사로 재임하던 시절인 1898년 2월 22일이었다.

아울러 기존의 기와집을 대체하는 새 영사관 건물의 건립은 월터 힐리어(Walter C. Hillier, 禧在明) 총영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1889년 5월 6일에 부임하여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10월 27일까지 약 7년 동안 조선에 머물렀던 인물이다. 서울 정동에 들어설 영국영사관은 1889년 1월 18일, 상해건설국(上海建設局)의 책임건축가인 마샬(F. J. Marshall)이 설계하였으며, 기초공사의 마무리와 더불어 정초석(定礎石)을 놓은 것은 1890년 7월 19일이었다. 영국총영사관으로 시작되어 영국공사관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을사늑약'의 여파로 영국영사관으로 격하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다시 해방 이후에 영국대사관이 설치되기까지 영국의 외교공관은 한 장소에만 머물렀는데, 이는 한국 외교사를 뒤져봐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사례라 하겠다.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은 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인식은 서울에서 거행되었는데 조선 측에서는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이, 독일 측에서는 요코하마 주재 독일 영사 자페(Carl Eduard Zappe)가 조약문에 서명했다. 그 후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되었고, 1884년 11월 18일 조약에 대한 비준과 더불어 켐부쉬(Otto Zembsch)가 초

대 영사로 부임하였다.¹³⁾ 독일 공관은 당시 외교고문 뮐렌도르프의 소개로 낙동(현 충무로 1가)의 한옥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886년 11월에는 뮐렌도르프가 살았던 박동(현 수송동 종로구청 자리)으로 옮겼는데, 세창양행이 그 대지가 과거 뮐렌도르프가 귀국할 때 위임받아 관리하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조선과 독일 양국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박동에 있는 독일공관 대지와 육영공원(현 서소문동 38,39번지) 대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후 1902년 5월 독일 공사관은 회동(현 남창동 9번지)에 공관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다음해 4월 독일 공관은 충영사관에서 공사관으로 승격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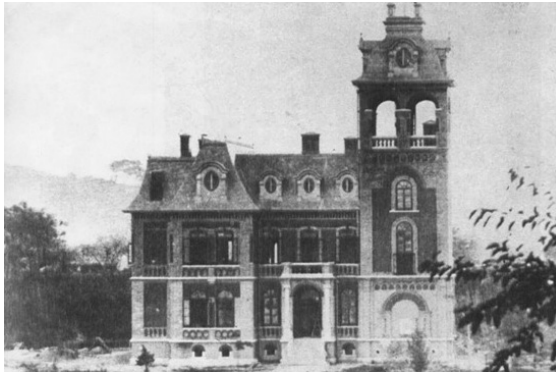
<사진 4> 1890년대 독일공사관 복문 전경



13) Hans-Alexander Kneider,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남겨진 독일의 흔적들: 1910년까지 정동 일대에서 활약한 독일인들의 略史」,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 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13, p.105.

14) 윤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 야정문화사, 1996, p.43.

<사진 5> 프랑스공사관 전경



조선과 프랑스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1886년 6월 6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 프랑스 전권위원 뵐랑시(Plancy)가 외교사무관 자격으로 서울에 부임하였다.¹⁵⁾ 프랑스공사관은 박동(薄洞) 독일공사관 서쪽(현 관수동 126번지)에 인접한 한옥에 개설되었고, 그 후 1889년 10월 1일 정동 러시아공사관과 정동교회가 인접한 지역(현 창덕여중 자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정동 서양인촌으로 옮겼다. 공사관 설계는 건축가 샬르벨르(M. Salebelle)가 맡았으며 프랑스 바로크 스타일로 지어졌다. 1896년 4월 27일, 뵐랑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리공사로 임명되었고 공관의 명칭도 공사관으로 바뀌었다. 당시 신축한 프랑스 공사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탑옥까지 있어서 실제로는 지상 5층에 해당하는 높이였으며, 규모는 건평이 415평이나 되었다. 내부 장식도 최고급으로 꾸며 당시 서울에 건축된 서양식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¹⁶⁾ 공사관 바로 옆에는 법어학교(法語學校)가 세워졌고 중국 상해 세관에서 근무하

15)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교관의 명칭을 외교사문관으로 하여 서울에 상주시켰다. 경성부, 『경성부사(제2권)』, 1936, pp.81-82.

16) 지그프리트 켄테 저, 권영경 역,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 2007, p.200.

던 에밀 마르텔(E. Martel)이 교장으로 초빙되었는데, 그 후 학교명은 한성외국어학교로 개칭되었다.¹⁷⁾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 10월 공관을 지금의 프랑스대사관이 있는 마포구 합동 30번지로 이전하였다.

<사진 6>1880년대 러시아공사관 전경



17) 법어학교는 프랑스어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수업연한은 5년, 3학기제로 정하였으며 교수 4명, 서기 1명을 두었다. 교장 에밀 마르텔은 1885년 개교부터 1911년 폐교 때까지 교장 및 교수로 근무하였다. 서울 중구문화원, 앞의 책, pp.126, 135-136.

<사진 7> 미스 손탁과 외국인 손님들(손탁호텔)¹⁸⁾



조선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수립은 갑신정변을 전후한 시기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러시아 정부는 북경공사관 서기인 칼 베베르(Karl I. Waeber, 韋貝)를

18) ‘미스 손탁(孫澤嬢)’으로 알려진 앙트와네트 손탁(Antoinette Sontag, 1854~1925)이 주인이었던 손탁호텔(정동 29번지)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손탁빈관(孫澤賓館)’ 또는 ‘한성빈관(漢城賓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호텔은 아관파천이 있던 해인 1896년을 전후한 시기에 러시아공사관 건너편 자리를 사들이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반일친미 세력의 대명사인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Chongdong Club)’의 회합소였던 적도 있었다. 또한 한창때는 서울 거주 서양인들의 일상 공간처럼 자리매김 되기도 했다. 1904년 러일전쟁을 고비로 러시아 세력이 위축되면서 그럭저럭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1909년에 이르러 다른 서양인 호텔이었던 팔레호텔의 주인 보에르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1917년 건물 부지가 이화학당에게 넘겨져 여학생 기숙사로 전환되어 사용되다가, 1922년 그 자리에 프라이어홀의 신축을 위해 헐리면서 그 이름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김원모, 앞의 논문, pp.202~205.

파견하여 외교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동 조약의 양국 대표는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독판(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 김병시(金炳始)와 러시아의 특간전권대신(特簡全權大臣) 베베르였다. 조약은 1885년 10월 14일 비준서 교환과 더불어 정식 발효되었으며, 이 날짜로 러시아공사관도 개설되었다.¹⁹⁾

한말 러시아공사관이 위치한 곳(정동 125-1번지)은 연산군 때 말을 기르던 마장(馬場)의 운구(雲廐)로 이용되었는데, 시내 중심가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망이 좋았다. 바로 이곳에 1888년 러시아공사관이 지어졌던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 3층 탑부로 이루어진 ‘서양식’ 공사관 건물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A. Sabatine)의 설계로 이뤄졌다. 사바틴은 20여 년간을 한국에 체류하며 무수한 근대건축물을 남겼던 개화기의 대표적인 서양인 건축가였다. 매우 이국적이었던 러시아공사관은 비교적 수목이 무성하고 지대가 높았던 상림원 지역을 끼고 세워진 탓에 이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었다. 개선문을 꼭 빼어 닮은 아치 형태의 공사관 정문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러시아공사관 건물의 핵심은 3층으로 이뤄진 전망 탑부였는데, 가뜩이나 공사관 자체가 높은 언덕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오르면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러시아공사관은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세자와 함께 옮겨와서 다음 해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할 때까지 머물렀던 아관파천(俄館播遷)의 현장이다.

아관파천 이후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들어섰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기거하는 동안 고종의 수발을 든 이는 엄비와 손탁(A. Sontag)²⁰⁾이었고, 고종이 양식과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손탁은 서양요

19) 홍웅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 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263.

리와 커피²¹⁾를 준비하여 수랏상을 차렸다.²²⁾ 고종의 최측근 인사가 된 손탁은 왕실과 외국 사절과의 연락은 물론 왕실의 각종 경비도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지급되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²³⁾ 그러나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해 2월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이 일본 해군에 의해 격침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1905년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러시

-
- 20) 손탁은 베베르 공사의 처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김원모는 베베르 공사의 처남의 처형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크나이더(Hans-Alexander Kneider)는 손탁이 베베르 공사의 부인의 양언니라고 밝히고 있다. 김원모, 앞의 논문, p.176; Hans-Alexander Kneider, 앞의 논문, p. 108.
- 21) 한국에서 누가 최초로 커피를 마셨는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통틀어 가장 그 시기가 빠른 것으로는 영국의교관 윌리엄 칼스(William Richard Carles, 賈禮士, 加里士; 1848~1929)가 지은 <조선풍물지> (1888)를 지목할 수 있다. 칼스는 1884년 3월 17일부터 1885년 6월 6일까지 인천주재 영국 부영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책에는 그가 영국 부영사로 부임하기에 앞서 1883년 11월의 어느 날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던 뮐렌도프르(P. G. von Moellendorff, 穆麟德)의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개화기 커피는 가비차, 가배차, 양갱탕, 양탕국 등으로 불렸다. 고종의 커피 애호는 각별했다고 전한다. 특히, 고종은 손탁이 만들어 올리는 프랑스 요리와 커피를 즐겼으며, 1898년 9월 25일자 『일본공사관 기록』에는 “폐하께서는 때로 양식을 즐겨 찾으시는데 항상 커피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 상례”라는 언급이 보일 정도였다. 고종은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기거할 때는 물론이고 경운궁으로 환궁했을 때도 원두커피의 질은 향기와 맛을 음미했다. W. R. 칼스 저,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1999, pp.31~32; 이덕일, 『이덕일의古今通義: 커피 왕국』, 『중앙일보』(2011. 06. 06).
- 22) 고종이 얼마나 서양요리를 좋아했는지는 아래와 같이 서양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제의 수랏상을 준비하는 일은 어떤 다른 공무보다 잘 조직되어 있었다. 이는 황제가 아관파천 시절에 (...) 유럽식 수석요리사 자격으로 황제의 궁정에 머물게 된 알자스 지방 출신의 손탁이라는 여인 덕분이다.” 까를로 로제티,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학연구소, 1996, p.99.
- 23) 손탁은 아관파천 기간 동안 고종을 섬겼으며, 고종 역시 손탁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손탁에게 하사한 정동 29번지 사저 1,184평 대지에 벽돌로 양관(洋館)을 지어 하사하였다. 손탁빈관은 서울에 오는 외국인 국빈전용 호텔이었지만 양관으로서는 너무 협소했고, 이에 고종은 1902년 거액의 내탕금을 내려 2층 벽돌 건물을 지어 손탁에게 호텔경영권을 부여했다. 小松綠, 『明治史實 外交秘話』, 中外商業新報社, 1927, pp. 377~382.

아 공사 및 러시아군 80여 명은 일본에 의해 무장해제 당한 후 러시아로 강제 송환되었다. 러시아 공관도 폐쇄되었는데, 그 후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상화 되면서 공관 건물은 다시 러시아 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²⁴⁾

<표 2> 한말 정동에 건축된 서양식건물 목록

순번	번지수	준공년도	건축가	건물명
1	정동 10	1883	H. Chang	미국공사관
2	15	1885	A. Sabatin	러시아공사관, 러시아 아치
3	34	1887	吉澤友太郎	배재학당
4	34	1887	吉澤友太郎	삼문출판사
5	34	1890	沈宜碩	시병원
6	4	1892	R.C. Boyce	영국공사관
7	29	1896	M. Salebelle	프랑스공사관
8	1-11	1896	A. Sabatin	중명전(수옥헌)
9	5	1897	A. Sabatin	경운궁(환벽정)
10	5-1	1897	A. Sabatin	경운궁(구성헌)
11	29	1897	미국인+沈宜碩	이화학당 메인홀
13	34	1898	吉澤友太郎	정동교회
14	5	1900	A. Sabatin	경운궁(정관헌)
15	5-1	1900	A. Sabatin	경운궁(돈덕전)
16	16	1903	A. Sabatin	손탁호텔
17	5-1	1910	C.R.Harding+A. Sabatin+고가와	석조전
18	16	1922	Cross	이화학당 프라이홀
20	1-1	1925	吉澤友太郎	덕수교회
21	3	1926	Arthur Dixon	성공회 서울대성당
22	1	1926	中村誠	경성방송국
23	23	1926	미상	구세군 본영
24	5	1936	中村與資平	이왕가 미술관

24) 서울 중구문화원, 앞의 책, pp.126, 150-151.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나 사교활동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가 결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말 조선에서도 '외교관 구락부(外交官俱樂部, Diplomatic Consular Club)'가 있었다. 외교관 구락부는 1892년 6월 2일 처음 결성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외교관 및 영사단 클럽(Cercle Diplomatique et Consulaire)"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회원자격은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관에 한하여 주어졌다. 초기 외교관 구락부가 창설된 곳은 정동 17번지에 있던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였다. 이후 외교관 구락부는 1902년 말에 이르러 해체되기에 이른다. 더 이상 외교관들만의 사교모임이 꾸려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까닭이었다. 원래의 외교관 구락부가 해체된 뒤에 새로 결성된 '서울구락부'는 1912년부터 정동 1-11번지에 있던 이왕직(李王職) 소유의 옛 수옥헌 건물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 건물을 사용하던 도중 1925년 3월 12일 화재가 발생하여 이층이 전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옛 수옥헌은 상당부분 원형을 상실하고 말았다. 서울구락부는 해방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8번지로 옮겨진 '서울클럽'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함께 동 제국이 근대적 국제질서인 만국공법이 작용되는 자주독립 국가의 위상을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사실상 1904년 2월 체결된 <한일의정서>에 의해 제한을 당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한제국의 시정개혁을 강요하면서 행정각 부서에 고문관을 파견하였고, 외교고문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을사늑약(1905)이 체결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과정에서 만국공법은 국제사회의 정의로 작용하지도 않았고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²⁵⁾ 보호국은 19세기 후

25)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한 미국의 개입요청, 헐버트를 통한 서구 제국에 친서 전달 등 고종은 백방으로 국제사회의 공의를 기대하였지만 국제사회

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교적 수사였으며, 보호국이 독립국인지 아닌지는 국제법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당시 대한제국에 주재하던 각국 공사관은 보호조약의 체결과 함께 자국 공관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1905년 11월 22일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가 결정되자,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게 해외 공관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대한제국과 수교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서울 주재 공사관을 조속히 철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공사관 철수 의사를 밝혀 왔고, 독일 역시 즉시 공사관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주한 이탈리아 공사관 역시 이미 1905년 10월 17일자로 공사가 귀국한 상태였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단지 대한제국에서 이탈리아의 광산채굴권 실행에 대한 편의를 일본 측에 요청한 상태였다. 영국 정부도 1905년 11월 30일 공사관 철수를 통고하였고, 프랑스는 당분간 공사관을 존치시킬 의향을 보였지만 결국 동년 12월 26일 공사를 귀국시켰다.²⁶⁾ 결국 서구 열강은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를 승인해 준 셈이었고 그들이 대한제국을 떠나면서 정동 외교타운은 쇠락을 길을 걷게 되었다.²⁷⁾ 따라서 대한제국이 서구 제국과 맺은 외교관계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에 의해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는 정의가 아니라 힘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였다. 김기석,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을사늑약 무효선언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pp.241-242.

26) 서영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외교타운 정동의 종말」,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13, p.233.

27) 같은 논문, p.227.

Ⅲ.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식 교육의 요람

한말 이 땅을 찾은 많은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항에 입항한 한 척의 배에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과 미국 북감리교 소속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이 타고 있었다.²⁸⁾ 아펜젤러는 서울 정동 34번지 한옥을 매입하였는데, 거기는 스크랜턴 부인의 이웃집이었다. 이후 1885년 감리교 정동 선교부는 정동 남쪽에 있는 저택들을 구입하여 선교부를 확대하였다. 아펜젤러는 정동에 배재학당과 정동교회를 설립하였으며²⁹⁾, 아펜젤러의 딸인 A. R. 아펜젤러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며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초를 마련하였다.³⁰⁾

배재학당(培材學堂, 현 정동 34-35번지)은 1885년 8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설립한 한국 최초로 외국인에 의해 세워진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아펜젤러는 1885년 8월 3일, 자기 집에서 이겸라, 고영필 등 2명의 학생에게 신교육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학교를 개설하고자 하였다. 그는 조선 정부에 학교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당시 형조참의 안기영과 승지 채동술이 살던 당시 배재학당 터 7,000여 평을 조선 돈으로 7,250냥, 미화로는 568달러를 주고 마련하였다. 아펜젤러는 두 칸짜리 한옥의 벽을 헐고 교실 하나를 만들어 1886년 6월 8일 배재학당을 열었다. 고종은 1887년 2월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학교명을

28) 서울 중구문화원, 앞의 책, p.69.

29)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는 배재학당의 교장까지 겸했기 때문에 청년활동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한 서재필도 배재학당과 정동교회에서 활동했으며, 그가 조직한 협성회에서는 이승만·신홍우 등도 활약했다. 현재 남아있는 교회 건물은 1897년 세워진 것이며, 1918년에는 한국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30) 서울 중구문화원, 앞의 책, p.70.

내리고, 학교 현판을 하사하였다. 배재학당의 기독교인 양성과 근대 국가의 인재를 배양한다는 교육 목적을 표방하였으며, 성경과 영어를 비롯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근대 교육의 교과목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과목 외에도 배재학당에서는 체육시간에 서양식 운동인 야구·축구·정구·농구 등도 소개하였다. 또 특별활동 시간에는 연설회·토론회 등도 장려하였다. 초창기 학생들은 긴 도포에 큰 갓을 쓴 행전 차림이었다. 1895년 2월, 조선 정부는 배재학당에 관비생 200명의 위탁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사의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아펜젤러는 1887년 초 양옥교사를 정동에 짓기 시작하여 그 해 9월에 준공하였다. 르네상스식 건축양식으로 지은 단층 벽돌건물인 새 교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기금으로 지은 것이었다. 이 건물은 강의실과 도서실, 예배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반지하층도 있었다.³¹⁾ 단층인 배재학당 건물은 1932년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짓기 위해 헐렸으며, 완공된 이후 1층은 체육관, 2층은 예배실 겸 음악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배재학당은 1897년 7월 8일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에 의해 4년제 배재고등학당으로 인가를 받았다.

31) 반지하층에서 1889년부터 인쇄시설을 갖추고 인쇄를 시작하였는데, 한글, 한문, 영어 세 나라 활자를 갖추었다고 해서 삼문출판사 혹은 미이미 인쇄관으로 불렸다. 이 출판사는 이후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하고 감리교출판사로 발전하였다. 같은 책, p.81.

<사진 8> 배재학당 신축공사 모습



<사진 9> 이화학당 한옥교사 전경



그럼 다음으로 한국 최초 근대 여성교육의 요람인 이화학당의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자. 1885년 5월 3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턴(W. B. Scranton)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스크랜턴 대부인은 남편이 일찍 죽자 의사이자 감리교 선교사인 아들 내외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여 정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조선에 여학교를 세우고자 결심하고, 1886년 5월 31일 ‘시병원’에서 한 명의 학생을 입학시켜 학교를 시작

하였는데, 이 날을 이화여자고등학교는 학교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1886년 설립된 이 학교는 한국 여성에 대한 신교육의 발상지였으며, 이를 기리기 위한 석비(石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1886년 5월 31일, 여기에 미국인 선교사 메리 F. 스크랜턴 여사가 학교를 열고, 여성 교육의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한국 여성 신교육의 효시이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이 숭고한 교육의 의지를 기리기 위해, 여성 교육의 요람인 이화의 동산에 교직원 113인의 진심을 모아 비를 세워, 그 뜻을 세운다.³²⁾

그러나 ‘여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봉건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딸을 선뜻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첫 번째 학생은 김성녀라는 고위관리의 소실이었는데 석 달을 버티다가 영어배우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들어 온 두 번째 학생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니가 데려 온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다. 세 번째 학생은 서대문 성벽에 버려진 병든 여인의 딸인 세 살 난 별단이었다. 초창기 이 학교에 입학한 여학생들은 이름도 없어서 ‘퍼스트’, ‘세컨드’, ‘써드’라고 불렀을 정도였다.³³⁾ 초기의 그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크랜턴 대부인의 여성교육에 대한 열정과 선교 사업은 점차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1887년 이 학교의 재학생이 12명으로 늘자 고종은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으로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왕실이 이름을 하사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03년까지 이화학당에는 학제가 없었다. 학년이나 수업연한,

32) 이화학당 개교 100주년 시비 비문 참조.

33) 서울 중구문화원, 앞의 책, pp.92-93.

입학연령 등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보통은 8,9세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외국 유학을 가거나 시집가는 것이 관례였다. 졸업식이 따로 없었고 결혼하는 날이 졸업식인 셈이기도 하였다.³⁴⁾ 1908년 6월, 6명의 학생이 최초의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이화학당은 교육에만 힘쓴 것이 아니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매일 오후 3시 수업을 중단한 채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1904년 4월 이화학당은 4년제 대학과를 신설하였다. 아펜젤러는 1927년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명을 발전적으로 없애고, 1929년 이화여자보통학교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이화여자보육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로 분리하였다.³⁵⁾

1886년 5월 16일,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尤)에 의해 경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언더우드는 정동 13-1번지의 토지와 한옥을 매입하여 남자 기숙학교를 열었는데 이것이 경신학교의 효시였다. 그는 초기 이 학교를 고아원이라고 불렀는데 1890년 9월에는 25명의 남자 어린이가 공동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³⁶⁾ 1887년에는 이곳 기숙학교에서 성서의 한글 번역을 위한 ‘성서번역상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해 9월 27일 이곳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모교회인 새문안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후 언더우드는 기독교대학 설립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의 형에게 대학설립을 위한 5만 2천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한국

34) 같은 책, p.97.

35) 당시 정동에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가 같은 캠퍼스에 있었으나, 1935년 3월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이전하면서 분리되었다. 같은 책, pp.99-100.

36) 신앙과 생활, 신앙교육을 병행한 이 학교는 예수교학당, 민노아 학당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897년 일시 폐교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01년 선교사 게일(Gale)에 의해 구 세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졌다가 1905년 다시 경신학교로 개칭되어 그 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같은 책, p.88.

에 돌아왔다. 이후 그는 1915년 3월 15일 종로 YMCA에서 ‘경신학교 대학부’라는 이름으로 개교함으로써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다.

그 외에도 정신여학교³⁷⁾, 서양인학교³⁸⁾ 등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설립되고 서구식 근대교육이 시작되어 외국인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동은 서양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그 당시 정동 거리에는 서양인들이 세운 학교 외에도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 있어서 서양인들의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도 모여들었다.

아울러 정동 4번지에 정착한 영국총영사관(1898년에는 공사관으로 승격)과 관련하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바로 성공회대성당(聖公會大聖堂)이 들어선 정동 3번지구역이다. 영국영사관과 이웃하는 이 자리는 1889년 11월에 조선선교의 책임을 지고 초대주교로 승품이 된 코프(Charles John Corfe)에 의해 선교기지로 마련되어 1890년 12월 21일 이후 기존의 건물을 장림성당(將臨聖堂, The Church of Advent)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인 데서 그 역사는 시작된다. 성공회 서울대성당(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호)은 1911년 5월 제3대 주교로 임명된 트롤로프(Mark N. Trollope)에 의해 건립이 주도된 것으로 아더 디슨(Arthur Dixon)의 설계에 따라 1922년에 착공되고, 1926년 5월 2일에 1단계 준공을 보았던 건물이다. 당초의 설계도와 계획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지긴 하였으나, 때마침 태평로 일대의 확장과 더불어 성공회성당은 오래도록 서울 중심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어 왔던 것이다.

그 밖에도 당시 한국에서 활약했던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 독일 바이에

37) 1887년 6월, 미국 북장로교의 여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레스(A. J. Ellers)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동(貞洞)의 제중원 사택에 정동여학당(貞洞女學堂)이란 이름으로 설립한 사립여학교.

38) 서울 중구문화원, 앞의 책, pp.231-232.

른의 성오틸리엔 수도원에 본부를 둔 베네딕트회 수도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1909년 12월부터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으며, 서울 혜화동, 원산, 덕원 등지에 수도원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때는 38명의 수도사들이 북한으로 압송되어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들의 선교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대구 인근 왜관에 선교 본부를 두고 있다. 보니퍼지우스 자우어(Bonifazius Sauer), 카시안 니바우어(Cassian Niebauer), 마르틴 후베르(Martin Huber), 일데폰스 플레트징거(Illdefons Floetzing),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등이 당시 한국에서 활동했던 베네딕트회 선교사들이다.³⁹⁾

위와 같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 설립과 근대식 교육의 보급은 전통 교육사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신학문은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과거 제도의 폐지와 갑오개혁 이후 실시된 새로운 관리 선발제도는 신학문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외국어는 더 이상 역관의 전용물이 아니었다. 새롭게 신설된 영어학교, 독일어학교, 프랑스어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외국어는 입신·출세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신식학교는 신학문을 도야하는 전당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지향하는 표상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동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의 서양 신문명 수용의 근원지라는 문화사적 자취가 어린 곳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가 시작되고 한국과 세계와의 만남이 시작된 의미 깊은 곳이다. 조선왕조의 건국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39) Hans-Alexander Kneider, 앞의 논문, p.111.

정동은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의 핵심공간이자 외국인들의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정동 일원의 공간은 대한제국의 근대화의 의지와 청국, 일본으로부터의 압박을 벗어나 자주독립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 채워졌던 곳이다. 고종은 미국 워싱턴 DC의 방사상 도로체계와 도시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경운궁의 대안문(大安門) 앞을 방사상 도로의 결절점으로 삼아 오늘날 태평로,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서소문로를 연결시키는 서울 개조계획을 실시하였다. 조선왕조의 일개 행궁이었던 경운궁은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궁궐 내 뿐만 아니라 궁궐 주변지역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경운궁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 온 외교관, 선교사, 사업가, 기술자, 군인 등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정동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문화가 한국인의 식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개항을 전후하여 유입된 밀가루, 유제품, 설탕 등이 상류 사회에 점차 보급되었고, 빵, 케이크, 캔디 등 양과자로 일컬어지는 제품들이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커피, 홍차도 궁중에 소개된 이래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동에는 한말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집중되어 근대적인 외교타운이 형성되었고, 아울러 정동교회, 새문안교회, 영국 성공회, 구세군 본관 등 주요 종교 시설들이 들어서 기독교를 전파하였으며,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근대교육의 요람인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이 세워졌다. 또한, 손탁호텔과 같은 서양식 호텔과 시병원, 정동부인병원 등 서양식 근대 병원이 들어섰으며, 그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정동의 공간을 만들어가던 낯선 공존의 모습, 이 모습은 국제교류와 외교의 무대로 이어지는 신문물의 발신지로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10

여 년 전 대한제국의 다문화공간으로서 정동의 모습이었다. 오늘날의 정동 역시 그저 역사의 뒀안길로 밀려나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이 아니다. 정동극장에서 영국성공회를 거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정동제일교회와 구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지는 길이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다. 정동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매년 정동문화예술축제가 열리고, 역사와 예술, 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된 21세기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요소들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그와 맞물려 오늘날 정동의 물리적 공간형태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센터이자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허브(Hub), 그것이 21세기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정동의 모습일 것이다.

주제어 : 대한제국, 정동, 다문화, 교육, 외교, 선교

(논문투고: 2012.10.29/ 논문심사완료: 2012.11.18/ 논문게재 확정일: 2012.11.21)

참고문헌

1. 단행본

- 까를로 로제티,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학연구소, 1996.
- 경성부, 『경성부사(제2권)』, 1936.
-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 서울 중구문화원, 『정동: 역사의 뒀안길』 (서울특별시 중구향토사 자료 제11집), 상원사, 2007.
- 서울학연구소,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건축에 대한 학술연구』 (연구보고서), 서울학연구소, 2011.
- 윤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 야정문화사, 1996.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지그프리트 겐테 저, 권영경 역,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 2007.
- 小松綠, 『明治史實 外交秘話』, 中外商業新報社, 1927.
- Gustave-Charles-Marie Mutel, 『뫼텔주교 일기』 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H. N. 알렌 저, 신복룡 역, 『조선건문기』, 집문당, 1999.
- W. R. 칼스 저,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1999.

2. 논문

- 김갑득·김순일, 「구한말 정동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7), 2001.
- 김광우, 「대한 제국 시대의 도시계획 - 한성부의 도시개조사업」, 『향토

서울』 50집, 1990.

김기석,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을사늑약 무효선언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김원모, 『미스 손탁과 손탁호텔』, 『향토서울』 56, 1996.

서영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외교타운 정동의 종말」,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13.

송인호, 「정동의 역사도시경관」,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03).

안창모, 「대한제국의 황궁, 덕수궁 - 근대한국의 원공간」,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13, pp.61-62.

이덕일, 『이덕일의古今通義: 커피 왕국』, 『중앙일보』(2011. 06. 06).

홍응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 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Hans-Alexander Kneider,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남겨진 독일의 흔적들: 1910년까지 정동 일대에서 활약한 독일인들의 略史』, 『정동 1900: 대한제국, 세계와 만나다』 (제10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10.13.

The Multi-cultural Space of the Great Han Empire : Jeong-dong

Park, Kyoung-ha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n, is fingering compressed growth with a huge city of population of ten million people over the past 100 years. Especially Jeong-dong among the center of Seoul is where the city's cultural heritage and modern features engaged in the stratified region physically and historically. When I look at them in an integrated and holistic view, its dynamics can be read in the full, and we will be able to identify as affectively multi-cultural nature of enlightenment by the historical layers overlap.

In this paper, I examined that Jeong-dong's nature of as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Great Han empire divided into three; Emperor Gojong's Han fortress renovation plan, Jeong-dong's function as diplomacy Town building the legation of the western countries surrounding Gyeongungung Palace, and the meaning of Jeong-dong as the cradle of missionary activity and modern education. And I mentioned above, a strange coexistence of diverse and unique Jeong-dong's space, the appearance as a source of new cultur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the stage of diplomacy, and from now, for more than 110 years ago it was Jeong-dong's view as a multi-cultural

space of the Great Han Empire .

Today's Jeong-dong also as a base of creative and vibrant core of Seoul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the 21st century fused, history, art, and cultural diversity. Developing a variety of cultural harmony and physical space scattered in Jeong-dong, achieving culture hub meet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enter. It's the Jeong-dong's look that liv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21st century.

Key Words : The Great Han Empire, Jeong-dong, Multiculture, Education, Diplomacy, Mission